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체언과 용언의 표현을 중심으로-

전무용*

1. 들어가는 말

성경 번역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한국어를 한국어 문법에 맞게 표현하는 일은 유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성경 번역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번역자들이 의외로 한국어 문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어로 공부한 분들인데도, 막상 성경 번역을 하게 되면 어색한 한국어나 틀린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원문을 잘 파악한다고 해도 한국어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번역이 완성될 수 없다.

성서 번역자들이 관심을 두는 일은 일차적으로 본문의 의미이다. 파악된 본문의 의미는 한국어 문법에 맞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 원문의 의미를 아무리 잘 파악한다고 해도 번역된 결과가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게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틀린 번역일 뿐이다.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번역은 한국인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는 일이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해도 한국어 표현의 자연스러움에 이르지 못한다면 서툰 번역이 되고 만다. 원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원문을 이해한 수준이지, 그 원문을 한국어 번역으로 완성한 단계라고는 할 수 없다. 원문의 ‘문법적인 특성’이나 ‘표현의 특성’이 번역문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특성이 지닌 의미’가 한국어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원문의 특성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원문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살핀 다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을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말씀의 개념을 완전히 한국말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¹⁾. 그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찾아내어 번역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원어의 관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부장

1) 이 말은 백여 년 전의 한국어 성서 번역자 언더우드 가 했던 말이다. L. H. 언더우드, 『언더우드-한국에 온 첫 선교사』, 이만열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1999), 60-62; 서정민 편역, 『韓國과 언더우드: (1905-1941)의 언더우드 家』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83-84.

용구를 그에 맞는 한국어 관용구를 찾아서 번역하는 일이 그것이다. 원문의 “바늘 눈”과 한국어 “바늘 귀”의 표현의 차이는 성경 번역 초기부터 선교사들의 보고에 좋은 예로 거론되던 사안이었다.

여기서는 그동안 ‘성경 번역을 할 때에 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안들’을 체언과 용언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성경 번역자들이 왜 한국어를 잘 알아야 하는지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고자 한다.

2. 체언의 표현

2.1. 손윗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우리말에는 손윗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2인칭 대명사를 번역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대신 사용하는 말이 ‘주’ 또는 ‘주님’이다. ‘하나님’으로 실명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람의 경우에는 ‘선생님, 선지자님, 예언자님, 임금님, 총독님’ 등의 관직 또는 직책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폐하, 어르신’ 등의 부름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손윗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 것과도 정서적으로(또는 문화적으로) 맥락이 같은 것이다. 이러한 문화나 정서는, ‘손윗사람을 손가락으로 직접 지시하여 가리키는 것을 꺼리는 것’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흔히 부부간에 사용하는 말로 ‘당신’이 있다. 부부 사이에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한자어 ‘당신(當身)’의 뜻 그대로 ‘몸 자체’라는 말로, 화자로부터 상대방을 향해서 ‘너’로 직선적으로 가리켜서 부르지 않고, ‘몸에 당해서’라는 뜻의 말로, 완곡하게 방향을 돌려서 상대의 몸으로부터 말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종의 재귀적 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로서, 요즈음의 젊은이들이 연인 사이에 상대방을 ‘자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어법인 셈이다. 아래 『표준국어대사전』²⁾의 ‘당신’에 대한 설명에서, 4항의 ‘자기’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당신(當身) 「대」「1」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하오 할 자리에 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2」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 『당신의 아내 보냄./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3」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4」‘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아버지는

2) 국립국어연구소,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신다.§「참」너. 자네.

영어의 ‘you’의 번역어로도 ‘당신’을 사용한다. 영어의 ‘you’의 번역어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직접 상대를 가리키는 2인칭으로 지시적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로 손윗사람을 직접 지칭하여 말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이 말로 지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말 어법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당신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의견은 2인칭 대명사로 이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옳다.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이 말은 완곡어법으로 형성된 말이지만, 지시적인 용법으로 ‘당신’이라고 말하면, 돌려서 말하는 바탕 의미는 잘 느껴지지 않고, 직선적으로 상대를 가리키는 말로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직접 가리키는 말을 꺼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말이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툼의 당사자는 ‘낮잡아 이른다’고 하는 3의 의미로 듣게 된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특히 위 사전의 설명 3항의 어법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말 자체가 본질적으로 상대를 낮잡아서 부르는 말은 아니다.

위 1항은 ‘당신’이라는 말에 대한 바른 설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눈 앞의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실제의 한국어에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처럼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주어를 생략해 버린다. “당신”을 직선적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당하면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는 손윗사람을 직접 대놓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은 없다.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직접 이 말을 사용한다면 인간관계가 깨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과속운전, 가족의 눈물’ 이런 식의 표어가 걸려 있을 때는, ‘당신’이라는 말이 ‘너의 과속운전’ 과 같이 직선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표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이 표어를 보는 독자를 직선적으로 가리키는 물리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 그 발화자의 발화 ‘방향’ 또는 표어라는 매체가 만들어내는 ‘발화자와 청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때문일 것이다. 이 ‘방향’ 또는 ‘거리’ 때문에 ‘직선적인 침해’를 받는 느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 외국 영화의 번역에서, 나이가 약간 위일 정도의 윗사람을 부르는 2인칭 대명사나 정중하게 상대를 부르는 2인칭 대명사를 ‘당신’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할 때에는, 시청자들은 이 말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직선적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때 느낄 수 있는 침해의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과 한국인 청중 사이의 ‘거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영화의

번역이라고 해도 화자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를 이 대명사로 번역하기는 어렵다. 어린이가 할아버지뻘 정도의 어른에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어렵다. 시청자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명사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어르신’ 정도로 바꾸어서 번역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의견은 위 4항 설명의 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어법은 2인칭이라기보다는, 동일 공간 밖의(가시거리 밖의) 순위 어른을 호칭하여 부르는 독특한 어법이다. ‘동일 공간 밖의(가시거리 밖의) 순위 어른’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돌아가신 어른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한다.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재의 공간에는 안 계시는 분이냐’ 하는 반문도 한다. 동일 공간 밖이라는 것은 ‘가시(可視)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이러한 어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2인칭으로 하나님을 직접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속성 때문에, ‘가시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께서는……’이라는 어법은 ‘하나님, 자신께서는’ 또는 ‘하나님, 스스로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어법으로는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재귀적 용법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말을 다툼의 현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인들 중에는,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는 분을 가리키는 높임 말로 ‘당신’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말로 ‘당신’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이 말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말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한자어로부터 들어온 말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이 말을 써 보지 않은 이들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꺼릴 것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까닭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에는 대화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편견이 논의를 가로막거나 결정을 좌우할 때가 있다.

2.2. 3인칭 대명사 ‘그-그의/저-저의’

『개역』 렘 9:23-2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개역개정』 렘 9:23-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 번역에 있어서 대명사의 번역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어의 대명사의 용법이 다른 언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어에는 ‘3인칭 대명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현대의 한국어 문법책들이 ‘그, 그녀’ 등을 3인칭 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지시어 ‘이, 저, 그’에서 ‘그’를 3인칭 대명사의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영어에서의 ‘he, she’와는 많이 다르다. 『개역한글판』 성경이 위 예문에서처럼 이 말을 지시어 ‘그’로 번역한 것은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배려한 선택이다. 또 『개역한글판』 신약에서 3인칭 대명사로 ‘저/저들’을 사용한 것도 한국어의 대명사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개역』 삼하 12:3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개역』 눅 11:22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사용한 대명사 ‘저’는 겸양의 1인칭 대명사 ‘저’가 아니라, 지시어 ‘저’를 3인칭의 대용어로(또는 3인칭 대명사로) 사용한 것이다. 간명하게 속성을 설명하자면,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³⁾이다. 몸으로 직접 짚어서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을 ‘이’로 지칭한다면, 그 거리 밖에서부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대상을 ‘저’로 가리킨다. ‘그’는 본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이나 지칭 대상이 말하는 이의 생각 속에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철수는 그의 옷을 입었다’ 하고 말하면, ‘그의 옷’이 철수의 옷인지 철수 이외의 다른 사람의 옷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

3)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는다. 전후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그’가 칠수인지 다른 제3의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그’가, 본질적으로, 말하는 이의 생각 속에 지칭 대상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저’와 ‘그’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다만, ‘저’는 겸양의 1인칭으로 사용하는 대명사 ‘저’와 겸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두 말의 의미상의 차이는 ‘저’로 쓰는 것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눈앞의 사실을 말하는 맥락에 적합할 것이고, ‘그’로 사용하는 것은 말하는 이의 머리 속에 있는 내용을 전할 때에 더 적합할 것이다.

위의 예레미야 9장 23, 24절 본문을 한국어의 특성을 훨씬 잘 배려한 현대 한국어 번역인 『새번역』⁴⁾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23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말을 ‘자기의’로 번역한 것은 의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번역한 것이다. 『개역개정판』의 번역은 나름대로 이 시대의 문법 의식의 일단이 반영된 개정이다. 여기서 ‘그의’로 개정한 것은 그 자체로 나름대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3인칭 대명사를 모두 ‘그’로 번역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에서도 위의 『새번역』의 예와 같이 ‘그’를 ‘자기’로 번역한 곳이 있다. 다음 본문에서 보면 『개역한글판』의 “그”가 여호와를 가리키는지 제 3의 다른 인물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말을 “자기의”로 개정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역』 신 14: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개역개정』 신 14: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 본문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처럼 표현한다면, ‘그의’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이는 한국어 ‘그’가 가지는 태생적 의미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맥에서는 불가피하게 ‘자기의’를

4)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이름을 2004년 9월부터 『성경전서 새번역』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 책을 『새번역』으로 적는다.

사용하였다.

『공동번역』 창세기 18장 20절- 32절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그가’를 썼다. 3인칭 대명사를 3인칭 대명사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번역 자체로는 틀렸다 할 수 없으나, 우리 말의 정서에 잘 어울리는 번역은 아니다. 영어 성경들이 이 말을 ‘He’로 번역한 것과는 다르다. 이 본문은 『공동개정판』에서 실명사로 개정이 되었다.

『공동』 창18:20-32

30 아브라함이 또 여쭙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삼십 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시자 31 그가 또다시 여쭙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이십 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공동개정』 창18:20-32

31 그가 또다시 여쭙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이십 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32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공동번역 성서』보다 나중에 번역된 『새번역』(1993/2001)에서는 두 곳 다 “주께서 대답하셨다.”로 번역하였다. 『개역한글판』에서는 두 곳 다 다음과 같이 대명사를 생략하였다.

『개역』 창 18:31-32

30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생략된 주어)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생략된 주어) **가라사대** 내가 이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인칭 주어를 생략하는 것도 한국어의 특성에 잘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3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한 『공동번역』 초판의 번역이 한국어의 특성으로 볼 때에 어색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말은 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명사를 같은 대명사로 번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실명사로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책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제사장님께서-, 어른님께서-, 주께서-, 주님께서-,’ 등 여러 다른 명사를 써서 대명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2.3. 성경 번역에서 대명사 ‘그녀’를 사용하는 문제

원래 우리말에는 3인칭의 사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대명사가 없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말이 여성 3인칭 대명사이다. 1930년대 이후 일부 작가들이 ‘그녀’를 쓰기 시작했으며, 근래에 들어서 소설 등에서 가끔 ‘그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교 문법에서 ‘그녀’는 정식으로 대명사로 다루지 않는다. 남기심, 고영근 저 『표준국어문법론』에서는 “문인들은 3인칭 여성대명사로서 ‘그녀’를 쓰고 있으나 크게 보급되어 있지 않다.”⁵⁾ 이렇게 단 한줄 언급하고 있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그녀’를 3인칭 대명사로 올림말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다. 영어 참고서를 만드는 이들이 영어 ‘she’의 대응어로 이 말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직 제약이 많다. 영어에서는 자기 어머니도 ‘she’라는 대명사로 말하지만, 우리말에서 자기 어머니를 ‘그녀’라고 말하는 법은 없다.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를 남에게 소개할 때에 ‘그녀’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은 없다. 이것은 ‘그녀’가 아직 충분히 우리말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일반 대중들의 입말에서 ‘그녀’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다. 이러한 말에 비교적 익숙한 학생층이나 청년층에서조차도 자기 여자 친구를 두고 말할 때, 입말로는 ‘그녀’라고 말하는 법이 별로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번역에서는 아직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4. 성경 번역과 복수접미사

어느 독자로부터 한국어 성경의 단수 복수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원문을 따라서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성서공회로 들어왔다.

『개역개정』 딤후 3:6 예를 든 본문: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5)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8), 80.

독자의 제안: “여자”를 단수로 번역하였다. 원문에는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현재 분사로서 두 번 모두 복수이다. 같은 절에서 남의 집에 들어간 남자들은 복수로 번역하면서 왜 여자들만 단수로 취급했는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 말 성경은 단수, 복수에 대한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대표적 성경이다. 그런 곳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얘기할 수조차 없다. 단수 복수를 분명히 표시해야 성서 기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제는 제발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책임을 영성한 국문법에다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⁶⁾

제안 중에서 “이제는 제발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책임을 영성한 국문법에다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은 한국어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나 성경은 원문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명제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생각이다. 위 예문에서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구체적인 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들’을 붙여야만 한다. “어리석은 여자”는 이 맥락에서는 단 한 명의 어리석은 여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갑, 을, 병’ 등 불특정한 어리석은 여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다. 영어 번역은 “men, women” 등과 같이 복수로 번역하였다. 이는 물론 영어 문법에 맞는 표현이다.

CEV 2 Tim 3:6 “Some men fool whole families, just to get power over those women who are slaves of sin and are controlled by all sorts of desires.”

원문의 문법적인 형식을 번역문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면, 필연적으로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고 말 것이다. 독자의 제안보다는 『개역』의 번역이 더 한국어 어법에 잘 어울리는 번역이다.

또 다음과 같은 질문도 들어왔다.

신약성경에서 “성도들”은 “성도”의 복수라는 말인데, “성도”는 본래가 복수가 아닌가요? 어떤 곳은 “성도”, 어떤 곳은 “성도들”로 번역한 것은 왜죠?⁷⁾

한국어 문법 규칙을 따르면, 성도 일반을 이야기할 때에는 “성도”로만 적고, 성도 일반이 아니라 성도 중에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은”처럼 특정한 몇몇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제한적으로 말할 때에는 “성도들”로 적어야 한다. 『개역개정』의 “성도”와 “성도들”을 살펴 보니, 전체적으로 이러한 한국어 문법에 충실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 27: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6)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http://www.bskorea.or.kr>) 게시판으로 들어온 문의.

7)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http://www.bskorea.or.kr>) 게시판으로 들어온 문의.

일어나되”를 포함한 37곳은 성도 일반을 말하는 곳으로써 “성도”로 잘 적고 있으며, 행 9:32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를 포함한 26곳은 성도 중에서 특정한 몇몇 성도들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곳으로써 “성도들”로 잘 구분하여 적고 있었다.

단수 복수의 문제는 성경을 번역할 때에 번역자들 사이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어나 기타 외국어의 단수 복수의 문법이 한국어 문법의 경우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 한국어의 어법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외국어의 문법적 형식을 한국어에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원문에 복수 형태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낱말들의 한국어 대응어에 기계적으로 한국어 복수 접미사 ‘-들’을 붙이면, 원문과 똑같이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틀린 문장이 되거나 다른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성경 번역의 어느 단계에서 “두 예언자들”(스 5:2), 또는 “두 며느리들”(룻 1:8-9)로 본문을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수사 다음에 오는 명사 뒤에는 복수접미사를 붙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네 문장은 ‘-들’을 사용할 수 없는 문장들이다.

- ㄱ)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다.”
- ㄴ) “학생 셋들을 만났다.”
- ㄷ) “세 학생들이 간다.”
- ㄹ) “물들이 많이 흐른다.”

이와 같은 문장들에서는 복수접미사 ‘-들’을 사용할 수 없다. 몇 개인지 수를 셀 수 없는 ‘물’과 같은 불가산명사와, ‘하나 둘 셋 넷’ 등의 수사에서는 ‘-들’을 사용할 수 없다. 수를 셀 수 있는 가산성의 명사라도 특정한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들’을 붙일 수 없다.⁸⁾ 위 예문 ㄱ)은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몇몇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쓸 수 없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처럼 쓸 때에 복수접미사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단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문법과 복수접미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ㄹ) “한국인은 부지런합니다.”
- ㅁ) “한국인들은 부지런합니다.”

여기서 ㄹ) “한국인은 부지런합니다.”는 말이 되지만, ㅁ) “한국인들은 부지런

8)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90.

합니다.”는 이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다.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 동네에 사는 한국인들은~”이나 “어떤 한국인들은~”처럼, 특정한 상황을 전제해야만 ‘-들’을 붙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복수접미사 ‘-들’은 특정하게 지시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몇 명이 전제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에 이미 특정한 한국인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한국인들은 부지런합니다.” 하고 말을 한다면, 그 대화에는 이미 ‘그 지역이나 미국에 사는’과 같은 특정한 한국인들이 전제가 되어 있고, 대화자들이 상호 그 전제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형태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위 창세기 6장 1절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본문이다.

『개역개정』 마 4: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개역』 마 4: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 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독자의 제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여기서도 ‘-들’이 붙으면 특별히 일정하게 한정할 수 있는 숫자의 특정한 사람들을 나타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본문이 특히 ‘고통 당하는 자 세 명, 귀신 들린 자 일곱 명, 간질하는 자 두 명, 중풍병자 열 명’ 이런 방식으로 수를 규정할 수 있는 일정한 한정된 대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들’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한 한국어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들’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한국어 표현이 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복수일 때 부사나 동사에 복수 접미사가 붙기도 한다.

룻 1:8 어미 집으로 돌아가 머물러라
어미 집으로 돌아들 가거라

위 예문은 시어머니 룻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로, “너희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표준새번역 초판의 번역 과정에 이 두 문장을 두고 논의가 된 적

이 있다. 어느 쪽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동사에 ‘-들’을 붙여서 두 사람에게 하는 말임을 나타내 주는 쪽이 더 자연스럽고, 뜻을 더 잘 나타내 준다.

다음 예문은 불가산 명사인 ‘물’에 복수접미사가 붙을 수 있는 경우와 붙을 수 없는 경우이다.

- ㅅ) 물들이 고였다.
- ㅇ) 빨리 물들 좀 떠 오너라.

ㅅ)은 틀린 문장이고, ㅇ)은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문도 한국어 문법에서 단수와 복수의 문제가 기계적으로 ‘-들’을 붙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좋은 보기이다.

1.1. 주격조사 ‘이/가’와 ‘께서’의 사용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곳이 창세기 1장의 번역이다.

- 『개역개정』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새번역』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 『공동』 창 1:1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이’로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로 할 것인지는 번역자들 사이에 가끔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이’는 중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내용의 성격이 개인적인 존경을 담아야 할 성격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성격의 내용이다. 여기에 ‘-께서’를 쓰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 자체로 귀한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이런 맥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께서’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의 뜻을 담은 고백에서 ‘-께서’를 붙이는 것은 내용에 적합한 표현 형식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존경이나 고백을 담은 내용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는 맥락에서는 ‘-께서’를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 본문에서 ‘께서’를 사용하면 그 내용이 개인적인 존경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본문의 성격이 바뀐다.

께서 「조」(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그 대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주격 조사 ‘가/이’의 높임말이며, 이때 서술어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다.
 ¶아버님께서 신문을 보신다./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다.§9)

조선 시대에 출간되었던 논어 언해에서 공자를 주어로 하는 문장의 주격조사 를, “子 | 曰……” 하는 형식으로, 모음으로만 적는 주격조사 ‘ | ’를 사용한 것은 공자에 대한 존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표현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공자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을 나타내는 문맥이 아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격조사 ‘ | ’가 ‘-께서’보다는 중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께서’가 ‘ | ’보다는 ‘인격적’인 특성이 강하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창세기 1장 1절 본문은 “하나님이”로 번역한 『개역한글판』의 본문은 그 내용에 적합한 표현이다.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로 번역하는 것이 존경을 담은 적합한 표현이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본문의 내용이 개인적인 존경의 고백을 표현하는 문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신약 본문에서 “예수께서”로 본문을 번역한 것은 또 그 맥락에 맞는 적합한 번역이다.

『개역』 마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개역』 행 17: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위 본문에서 볼 때에, 사도행전 17장 3절을 맥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로 표현한다면, 중립적인 내용에 개인적인 존경을 담은 형식이 되어서 문맥에 맞지 않는 존경이 되고 말 것이다. 높여서 말하는 것은 그 내용과 맥락에 맞아야 한다.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높여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 높이면 우스꽝스럽거나 천박한 표현이 되고 말 것이다. 또 마태 4장 1절을 “그 때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하는 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것이다. 다만, ‘-께서’가 가지는 ‘인격성’을 고려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께서……”로 한 것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의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셔서……” 하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은 깊이 나타낼 수 있겠지만, 내용의 객관성 사실성 역사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보고자 또는 기록자의 개인적인 마음 또는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성격이 강한 본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예수에 대한 개인적인 존

9)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경이나 이해가 없는 제3자가 볼 때에는 거리감만 주거나 거북하게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존비법 속에 들어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생각하더라도 다음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을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 창 3: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새번역』 창 3:12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짚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하나님이”와 “하나님께서”는 표현의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술의 차원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이다. 격식을 갖추는 표현일수록 대화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친밀어로 갈수록 거리는 가까워지고, 표현은 점점 더 중립적인 형식이 될 것이다. 엄숙하게 격식을 갖추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 정도로 수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라고 짚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어요’로 말하는 것을 두고 충분히 예의를 갖추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이 정도로 자기에게 말을 한다면 버릇없다고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존비법에 있어서는 문법적으로 오직 하나의 정답을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수직적인 사회, 봉건 사회일수록 존비법의 단계는 복잡해지고 엄밀해지고 엄숙해질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수평적 사회일수록 친밀어가 격식어보다 더 잘 발달할 것이다. 격식어도 양극화 또는 다극화 되면서 엄숙해지기보다는 중화(中和)적인 표현으로 발전할 것 같다.

3. 용언의 표현

3.1. 형용사의 높임법 : 고마운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사전이나 문법책에서는 형용사를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형용사는 본질적으로 ‘사물의 상태나 성질에 대하여 말하는 사

람(일인칭)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다. 언젠가 어떤 분으로부터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데, 이것이 맞는 표현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고 적어야 맞는 것인지요?”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기쁘다’는 형용사이다. 말하는 이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다. ‘꽃이 빨강다’고 하면, 객관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빨강다’는 말의 범주가 객관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말이 나타내는 빛깔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빨강지 않다’는 것과 ‘빨강다’를 구분할 수는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본질적으로 형용사가 묘사적 언어가 아니라 느낌을 말하는 인지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 영역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의 느낌에 ‘-시-’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형용사에 ‘-시-’를 붙이는 것은, ‘선생님이 오-시-나다’처럼, 움직임을 묘사하는 말인 동사와 같이, 곧 말하는 이의 주관적 느낌이 배제되는, 묘사적인 용법으로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형용사의 객관화’ 또는 ‘형용사의 묘사적 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용사는 형용사답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태나 성질에 대한 저마다의 느낌은 그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어서, 높이거나 낮출 대상이 아니다. 맞지 않는 ‘-시-’를 쓰는 것보다는 ‘피부가 곱네요’ 하여 자기의 느낌을 정확하게 느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좋은 하나님, 고마운 하나님’은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우리말 어법에 맞는 정확한 표현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말은 이제 누구나 쓰고 있어서, 틀린 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어색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어색하다고 ‘-시-’를 빼고 ‘고마운 하나님, 좋은 하나님’ 하자니, 무례한 표현 같다. ‘고맙다’는 형용사이다. ‘그 사람 고마우신 분이다’ 하면 ‘고마우-신’에 붙은 ‘-시-’가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 말을 ‘고맙다’고 느끼는 주체를 살려서 ‘나는 그분이 고마우시다’ 하고 풀어서 적어 보면 맞지 않는 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마우신’이라는 말은 느낌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고마우-시-다’ 하는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꼭 높이고 싶으면 ‘고맙다’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참 고마운 분이시다’ 하고 서술어에 ‘-시-’를 높여서 붙이면 된다. 같은 원리로, ‘?(나는) 하나님이 좋으시다 ↔ 좋으신 하나님’으로 쓰지 말고, ‘좋은 하나님’으로, 써야 할 것이다.

같은 형용사 가운데 다른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아름다우신 어머니”를 수식 관계를 풀어서 서술어로 적으면 “어머니가 아름다우시다”가 된다. 이런 말

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다. 말하는 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말하는 이의 느낌을 ‘-시-’로 높일 까닭이 없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주체를 살려서 ‘나는 어머니가 아름다우-시-다’ 하면 ‘-시-’를 붙이는 것이 어떻게 맞지 않는 표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어머니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하는 표현을 ‘(나는) 어머니가 아름다우시게 느껴진다.’ 하고 적으면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시-’를 넣을 까닭이 없다. 문장 속에 ‘나는’이 있든지 없든지 ‘아름답다’고 느끼는 주체는 언제든지 말하는 사람(일인칭 화자)이다. 형용사가 본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일인칭)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형용사에 ‘-시-’를 붙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단순히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 현상인지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형용사는 형용사답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좋은 것이 좋다고, 좀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자고 하는 표현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스개로 하는 옛 말에, 새로 시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대갈님에 검불님이 앉으셨네요’ 했다는 말이 있다. 높임말을 잘못 쓰는 사람을 두고 놀릴 때 쓰는 말이다. 하나님을 두고 틀린 말로 써서는 안 되는 까닭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3.2. 형용사의 명령형: 생겨라 있어라

『표준새번역』(1993)이 출간되고 나서, 창세기 1장 3절의 본문을 두고 “있어라”와 “생겨라”가 논의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있어라”는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나타내고, “생겨라”는 유에서부터의 창조를 나타내므로, 창세기에서는 “있어라”를 써야만 하고, “생겨라”를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1911년부터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빛이 있어라’로 본문을 번역하고 사용해 온 것은 이제 거의 백 년이 되었다. 이 성경 본문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재산이다. 『개역개정판』 성경을 개정하시던 분들이 이 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전통적인 번역을 존중해서 이렇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택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있어라’는 무에서부터의 창조 명령이고, ‘생겨라’는 유에서부터의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설명은 국어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자의적인 의미 부여이다. 『국어대사전』에서 ‘생기다’의 설명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이다. “제방에 구멍이 생기다/옷에 얼룩이 생기다/얼굴에 흉터

가 생기다/기차역이 시외로 옮겨지면서 역 주변에 새로운 상가가 생겼다.” 국어 사전에서 예문으로 든 이러한 말들이 애당초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말은 아니다. 우리 말에서 애초부터 그런 신학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은 없다. 다만 그러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하는데, ‘생기다’라는 동사는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말이다. 이 말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한국어이다.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다 쓰이는 말이다.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처럼 말할 때 사용된다. 형용사로 사용될 때에는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처럼,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¹⁰⁾ 이 말의 형용사 용법은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지, 무에서부터 유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형용사는 상태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지,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는 없다. 변화를 나타내는 말은 이미 동사이다. 그리고 이 말의 동사의 용법은 “얌전하게 있어라./가만히 있어라./우리 모두 함께 있자./모두 손을 든 상태로 있어라.”¹¹⁾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창조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는 없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명령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 문법이다. ‘없어라’ 하면 명령형이 되지 않는다. ‘예뻐라, 고와라, 추워라, 더워라, 아름다워라, 커라, 작아라’ 등의 어떤 형용사도 명령형이 되지 않는다. 형용사를 명령형으로 쓰는 것은 틀린 사용이다. 명령형으로 쓴다고 해도 우리 말에서 그러한 표현 형태는 감탄형이 되고 만다.

“빛이 있어라”라는 창세기 1장 3절의 본문은 백 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어 오면서, 충분히 본문의 의미를 전달해 온 본문이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 모두가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 이 본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로 생각을 한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본문을 논할 때에 기본적인 한국어 문법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다.

3.3. 격식어 친밀어에 따른 대화문의 종결형 표현

우리말에서는 명사로부터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어미까지, 거의 모든 곳에 높임법이 문제가 된다. ‘밥’을 ‘진지’라고 높이는 것이나, ‘아들’을 ‘아드님’이라고 높이는 것이나, 앞에서 말한 형용사의 높임이나, 대명사의 사용 등 많은 말이

10) 국립국어연구소,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11) 위 사전에서 예를 든 문장들이다.

높임법과 관련이 있다.

이전 시대의 국어학자들은 우리말의 존비법 체계를 ‘존대말과 반말’ 또는 ‘높임과 낮춤’의 개념으로 설명해 왔고, 우리는 그러한 봉건적이고 수직적 개념 체계로 분석한 국어 문법을 배웠다. 외솔 최현배 님의 『우리말본』¹²⁾에서는 “움직씨의 끝바꿈” 같에서 “아주낮흙 예사낮흙 예사높흙 아주높흙 반말”로 베품꼴을 설명하고 있고, 현재의 학교문법에서는¹³⁾ ‘높임법’이라는 항에서 ‘존대법’이라는 말로, 상대높임법 항목에서는 ‘해라 하게 하오 합쇼 해 해요’ 등의 범주로 나누어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높임과 낮춤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형식은 전 근대적인 개념이다. 인간 관계를 위 아래의 수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인간 관계 형식이 수직적이라는 것은 봉건적인 관계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의와 격식을 갖춘 형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언어를 보아야 한다. 반말은 ‘비격식체의 친밀어’로 존대말은 ‘격식체’로 설명을 하면, 수직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격식체라 함은, 복장을 갖추는 때에, 양복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조끼 입고 모자까지 써서 완전하게 격식을 갖추어서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말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격식을 갖추어 예의를 차리는 말씨를 말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는 것은, 학생들이 높은 사람이어서 높인 것이 아니라, 예의와 격식을 갖춘 것이다. 너나들이를 하는 동무 사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격식을 갖추어서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다. 그럴 때에는 격식체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친밀어라 함은, 아이들의 만남처럼 아무 걸치레 없이 만나는 만남, 격식 없이 거리감 없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씨이다.

『공동번역 신약』의 초판 번역이 출간된 것은 1971년 부활절이다. 이 번역은 출간되고 나서 교회로부터 환영도 받았지만, 적지 않은 비판도 함께 받았다. 그 비판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의 어조를 높임말(격식체 또는 경어체)로 적었다는 것이다. 『공동번역 신약』 초판 번역으로 『공동번역』(1977) 루가 14장 7-10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8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시오. 혹시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당신과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시오’ 하고 말하는지도

12)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61).

13)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계면적으로도 맨끝자리에 내려앉아야 할 것입니다. 10 당신이 초대받거든 오하려 맨끝자리에 가서 앉으시오. 그러면 당신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모든 손님들의 눈에 당신은 영예롭게 보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른바 ‘높임말(격식체)’로 번역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신앙이 돈독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교역자들에게, 낯설게 보이거나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반말이어야 하고, 높임말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또 예수의 말씀을 높임말로 번역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주 심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인간 예수’로 만들려는 인본주의적 저의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

우리말의 대우체계에 대하여 ‘높임’이나 ‘낮춤’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이며, 이것은 다분히 수직적 봉건적인 사유로 언어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말의 대우체계를 수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격식체’와 ‘비격식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다.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말은 ‘격식체’이고, 서로 친밀도가 높은 사이에 격식을 차리지 않고 하는 말은 ‘비격식체’이다. ‘했어, 먹었어’와 같은 ‘비격식체’ 어법에서, ‘했어요, 먹었어요’처럼 격식을 약간만 갖춘 어법, ‘했습니다, 먹었습니다’와 같이 충분히 격식을 갖춘 어법, 이렇게 언어를 수직적인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비격식체’로 적는 것은, 예수를 ‘교양이 없는 분’ 또는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인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 가운데는 예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무리를 두고 ‘너희’라고 부르면서 소위 ‘반말’(비격식체)로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떠한 문체로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번역자들은 매번 많은 고심을 한다. 1967년에 나온 『신약전서 새번역』에서 누가복음 14장을 한 절 인용해 보면, “8 너희가 누구에게서나 결혼 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초대받은 손님중에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그 당시의 설문 자료를 보면, 예수의 말씀을 격식체(경어체)로 번역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개역』의 전통과 『개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한국 교회의 정서를 두루 고려한 결과이다. 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비격식체’로 적

은 것을 비판하고 아쉬워했다.

1971년의 『공동번역 신약』에서 예수의 말씀을 격식체로 번역한 것은, 『신약전서 새번역』이 나온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적지 않아서, 1977년에 나오는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신약을 개정하여 구약 번역과 합본을 하는데, 『공동번역 신약』의 개정판(1977)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비격식체(반말체 또는 해라체)로 고쳐서 낸다. 『공동번역 신약 개정판』(1977)이 나왔을 때에, 이제야 제대로 되었다고 이를 반가이 여기는 분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모처럼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데 개정판에서 개악되고 말았다고 하여 안타깝게 생각한 분들도 많았다. 어떻든 한 가지 번역에서 반대되는 두 가지의 의견을 동시에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 쪽의 의견을 수용하면 다른 쪽의 의견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격식체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적지 않으며, 성경번역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높임말로 번역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날 문제이다. 한국어 문법에서 존비법을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로 이해할지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할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날 문제이다. 예수는 요 11:11에서 스스로 나사로를 친구라 하였고, 요 15:14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다. ‘친구’를 마음에 둔 예수께서 한국어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로 말씀을 하실까? ‘반말’이 아닌 ‘친밀어’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또 교회에 몸소 오셔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격식어’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 선택은 틀리거나 맞거나 하는 하나의 정답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 예수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진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모든 경우의 대화문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특히 한국어 성서 번역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3.4. 일반 서술문의 종결형의 표현

1967년의 『새번역 신약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와 같이 되어 있다. 여기서 “-입니다/-습니다”로 종결형을 사용한 것은 앞에서 말한 입말의 격식체 문장으로서 좋은 선택이었다. 그 이후에 나온 『공동번역』 및 『새번역』에서는 모두 서술문의 종결형을 “-하였다/-이다” 꼴을 사용하였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현대문의 종결형의 특질을 살펴보려고 한다.

“-입니다/-습니다” 형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ㅂ/-습-’은 중세국어의 ‘으옵/옵/습/사옵/사오/삽/습’ 등의 형태와 이어져 있다. 말하는 이가 스스로를 겸손히 말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문장이 현대문에서 격식체 문장의 선어말어미 ‘-ㅂ/습’이 되었다. 성경이 소리 내서 읽는 책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은 말하는 이가 겸손의 형식으로 인격적으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가 내용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여기에 비해서 “하였다/이다” 꼴의 문장은 훨씬 중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현대문의 대부분의 문장이 이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이 문장의 중립성 때문이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글이나 학술 논문의 문장이 모두 이 형태를 취하게 된 까닭이 바로 형식의 중립성 때문이다. 성경 본문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중립적인 표현 형식은 내용에 맞는 형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입말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글말체라는 점 때문에 소리 내서 읽는 성경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글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입에 있는 말을 다시 말로 재생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해 놓은 기호라는 점에서 보면, 원래의 입말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격식체 입말이 화자의 겸손이라는 인격성이 들어 있는 형식이라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했어요/이어요’ 꼴도 마찬가지이다. ‘-요’라는 종결형에 말하는 이의 겸손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최초의 출발점이 사람의 입이었다는 점과, 역사적 사실을 전달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전달자의 입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입말 형태를 피할 까닭은 없을 것 같다.

여기에서 하나의 최선의 결론을 얻기는 어렵다. 어떤 형식을 선택하든지 선택하기에 따라서 얻는 점이 있고 잃는 점이 있다. 관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는 말

우리말은 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우리말에는 손윗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2인칭 대명사를 대명사로 번역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대신 사용하는 말이 ‘주’ 또는 ‘주님’이다. ‘하나님’으로 실명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문법적으로는 ‘당신’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대명사

를 실명사로 바꾸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직책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다른 대용 명사를 써서 대명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여성 대명사 ‘그녀’는 아직 충분히 우리말로 정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번역에서는 아직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어 문법의 경우에 단수 복수의 문법이 외국어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원문에 복수 형태가 있다고 해서 한국어 번역어에 기계적으로 복수 접미사 ‘-들’을 붙이면, 한국어에서는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있다. 복수접미사 ‘-들’은 특정하게 지시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몇 명이 전체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특징은 ‘복수 접미사의 제한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외국어와는 다른 한국어 복수 접미사의 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 한다.

주격조사 ‘ㅣ’가 ‘-께서’보다는 중립적인 성격이고, ‘-께서’가 ‘ㅣ’보다는 ‘인격적인 성격’이 강하다. 주격조사 ‘-께서’의 사용은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인격적 태도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사를 쓰는 것은 높임의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인 존경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문장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는 서술어에서 존경의 ‘-시-’를 붙이는 경우에도 같다.

말하는 이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인 형용사는 형용사답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말하는 이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에 무리하게 높임의 ‘-시-’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형용사를 명령형으로 쓸 수 없다는 점도 이 말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일반 서술문의 종결형의 표현으로는 “-입니다/-습니다” 형태로 입말의 격식체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종결형을 “-하였다/-이다” 꼴로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

한국어 성경 번역자가 한국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에 따라서 성경의 한국어가 얼마나 정확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이 글은 성경 번역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이들에게 한국어 공부에 왜 필요한지를 말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 체언과 용언을 중심으로 그동안 성경 번역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을 일부 정리하였다. 번역어의 어휘 선택 문제와 번역문의 어순 문제 등은 다음에 별도로 다루려고 한다.

* 주요어

성서번역, 한국어문법, 격식체, 당신, 그녀, 종결형.

<Abstract>

Essential Korean Grammar for Bible Translators -Focusing on the Expression of Substantives and Declinable Words-

Moo-Yong Jeon
(Korean Bibl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o persons who dream of becoming Bible translators why they need to study Korean, and to summarize major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in the past.

Among the various matters needing to be considered in Bible translation, getting the translation into grammatically correct Korean is something that cannot be overlooked. From the time I took on Bible translating work, however,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translators did not know Korean grammar well. Though all of them had been born in Korea, grown up using Korean as their mother tongue, and done their studies in Korean, I often spotted awkward or incorrect Korean in their Bible translations.

Bible translator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meanings of the original texts, and they must be expressed in proper Korean grammar. No matter how well the translator understand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his/her translation will be incorrect if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Korean grammar. Translations that are grammatically incorrect in Korean cannot deliver the original meaning to Korean readers. Whatever the circumstances, this should never be compromised. Moreover, if the translation is grammatically correct but unnatural in expression, it will likewise be a poor translation. The reasoning that "it can only be translated as such because that is the way the original texts are," means that the translator may have reached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e original texts, but s/he has failed to reach the level of expressing those original texts in perfect Korean. It is not the 'grammatical or expressional features' of the original texts that translated sentences need to reflect, but the 'meanings implied within the features of the original texts' that need to be expressed in Korean. Translators need to speculate on how such features of the original texts should be expressed in Korean.